

일탈소녀들의 소년원 적응전략

정혜원*

본 연구는 재사회화기관인 소년원에서 일탈소녀들이 경험하는 문화를 “가족”이라는 관점을 통해 관찰하고 기술하였다. 일탈소녀들의 소년원 적응과정을 탐구함으로써 일탈소녀들이 내면적 세계와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또한 다시 사회 내로 재통합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 문화기술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소년원생들이 끊임없이 소년원 적응전략, 즉 “의사가족관계”와 “자유영역만들기”를 통해 “보살핌과 애정”을 필요로 하고 갈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소년원에서 단순히 “가족이란 소중하고 화목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주입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현실과 부모의 가치관을 고려하는 가운데 처우조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기성세대들의 관심과 애정에 기초한 구체적인 참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I. 들어가며

최근 청소년일탈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고 있다. 청소년일탈은 청소년이 우리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이러한 청소년 일탈은 사회학, 심리학, 법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었다.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연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흐름은 긴장이론(김준호, 1973; 남재봉, 1982), 통제이론(전숙자, 1985; 강익희, 1986), 낙인이론(김소연, 1985; 강세현, 1986; 박정선,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1987; 윤옥경, 1987)등의 일탈이론을 검증하거나, 이들 논의들을 통합하려는 시도들이 있다(유혜경, 1986; 이태원, 1992; 이동원, 1997). 두 번째 흐름은 청소년일탈의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전광희, 1992; 김준호, 1995), 학교(임용우, 1984; 안양희, 1988; 김윤희, 1989), 친구(김현정, 1986)등의 요인들이 일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의 청소년 일탈에 서구 이론들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특정 시점에서 일탈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작업들이었다.

선행연구는 청소년일탈의 원인을 해명하거나 서구이론들을 우리현실에 적용한 점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일탈청소년들의 내면적 세계나 문화에 대한 연구 혹은 일탈청소년들을 어떻게 사회적 환경 및 가치체계로 다시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연구들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교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일탈소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의 내면적 세계와 문화를 탐색하고, 일탈청소년이라는 낙인으로써 그들을 이해하고 탐색하기보다는 인생의 과도기인 청소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 인간으로써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탐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가족구조와 청소년일탈이 높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탈소년들의 소년원생활을 “가족”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 문화기술지를 사용하였다. 문화기술지는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접촉과 관찰을 통해 일탈소년들의 시선으로 재사회화 적응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II. 기존연구 검토와 연구방법

1. 기존연구 검토

오늘날 청소년일탈의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는데 가정적 요인, 학교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개인적,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어 왔으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차적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적 요인이다. 가정적 요인이 청소년일탈에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어 왔다.

가정이란 공통의 주거, 경제적 협력, 생식 등의 특성을 갖는 사회조직의 하나로 대면적 관계를 중시하는 일차적 집단이며 인간은 누구나 어떤 가정에서 가족¹⁾과 더불어 생활하며 성장한다. 그 속에서 초기사회화가 이루어지며 정서적 안정과 인격의 기초를 형성한다. 청소년이 가정의 초기사회화과정에서 적절한 애정과 문화적 혜택 그리고 정서적 안정 등을 갖지 못할 때 그 후 학교나 사회에 나아가 문제행동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최충욱 외, 1992).

가족과 청소년일탈과의 관계 연구를 살펴보면 간단히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일탈과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연구이다. 부모의 지나친 폐쇄성, 방임성, 통제성, 보호성 등의 심리적 특성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청소년일탈이 많이 일어난다(이길자, 1999; 변영인, 1994)는 것이다. 둘째, 가정환경과 청소년일탈과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이다(김준호, 1995; 전광희, 1992). 셋째, 핵가족화와 더불어 가족구조에 있어서 취업여성의 증가, 이혼의 증가, 주말부부의 증가, 자녀의 수 감소, 주거생활변화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정이 많이 생겨나고 그 속에서 결손가정의 아동, 유기된 아동, 보호가 결핍된 아동,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이 많이 생겨날 뿐 아니라 가출 및 일탈청소년 등 각종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사회에 배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김성이, 1992).

이처럼 부모의 적절치 못한 양육방식이나 갈등과 긴장을 초래하는 가족구조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일탈을 유발하는 성격을 형성하게 하거나 일탈문화에 참여하도록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일탈과정 진입에 원인으로 제공된다는 “가족환경”이 일탈소녀들의 소년원생활에 어떤 영향관계를 형성하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2. 연구 방법

- 1) 가족이란 가족 구성원, 동고동락의 생활공동체라는 것 이외에 가풍, 가훈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써의 문화집단으로 정의한다(이광규, 1981).

1) 연구방법과 연구과정

소년교도소·소년원·보호관찰소·갱생보호단체와 같은 재사회화기관 중에서 일탈소년들의 재사회화 적응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현장으로 서울 근교 노랑소년원을 설정하였다. 소년원은 폐쇄적 기관이기 때문에 개방적 형태를 띠고 있는 보호관찰소에 비해 관찰하기 용이하며 소년교도소에 비해서 교육의 목적이 강한 기관이다. 이에 본 연구목적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라고 판단되어 일탈소년들만을 수용하는 종합소년원²⁾인 노랑소년원을 설정하였다. 연구기간은 1차자료수집기간 1999년 3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의 5개월, 2차 자료수집기간 1999년 8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4개월, 총 9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하였다³⁾. 또한 연구자의 현장일지이외에 소년부기록과 공식적 일기⁴⁾·소년원생들의 비공식적 일기장과 편지·교환노트 그리고 소년원생 1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참고자료로 이용하였다.

연구 자료의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년부 기록은 소년법 제 79조에 근거하여 소년원에서 작성한 기록이다. 소년부기록은 자료 중 소년원기관을 대표하는 공식적 문건이며 소년원이라는 교정기관이 어떻게 소년원생들을 대상화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다. 공식적 일기장은 소년원이 강제적으로 기록하게 하는 것으로 소년원생들이 소년원에서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관찰하기 좋은 자료이다. 비공식적 일기장, 교환노트, 편지는 소년원생들이 자발적으로 몰래 기록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소년원생들의 비공식적 문화를 살펴볼 수 있

2) 소년원은 교과교육과 직업훈련의 병행여부에 따라 교과교육 소년원, 직업훈련 소년원, 종합소년원으로 분류된다. 종합소년원은 교과교육과 직업훈련을 병행하고 있는 소년원을 의미한다.

3) 1차 수집 자료는 3월에서 7월까지 수집된 자료이다. 3월·6월에는 일주일에 3일, 4월·5월·7월에는 일주일에 1일 이상을 관찰하였다. 하루 관찰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8시간이다(5월에는 야간에도 방문하였다). 2차 수집자료는 1차 수집자료 중 논문의 내용보강을 위해 소년원에 2회 방문한 자료와 사회에 복귀한 소년원생들을 명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인터뷰한 자료이다.

4) 소년부기록은 소년법 제 72조에 근거하여 소년원에서 작성한 기록이며 소년원기관을 대표하는 공식적 문건이다. 공식적 일기관 소년원이 강제적으로 소년원생들에게 하루생활을 기록하게 하는 일기다.

다.

<표 1> 소년원생들의 계급배경과 가족구성

단위 : 명, (%)

계급구성		가족구성	
자본가계급	0(0)	부모와 동거	47(41.2)
구중산층	17(14.7)	부만 동거	27(23.6)
신중산층	26(22.6)	모만 동거	20(17.5)
노동자계급	72(62.6)	그 외 다른 사람과 동거	20(17.5)
계	115(100)	계	114(100)

노랑소년원에서의 연구수행과정은 현장과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처음 자원봉사자로 접근했던 첫 번째 단계와 소년원을 연구하려는 연구자로서 접근했던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소년원 밖에서 퇴원생들과의 면접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2) 연구대상

(1) 소년원생들과 심층피면접자의 일반적 특성

노랑소년원에 보호되어 있는 소년원생들의 평균 나이는 18세이고 최초 검거연령은 평균 13세이다. 최초 평균 검거연령이 13세라는 것은 초범이나 연령이 어릴 경우 혼방하는 관례에서 볼 때 13세 이전에 적어도 1회 이상 사범기구와의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소년원에 보호되어 있는 일탈소년들의 계급구조와 가족구성을 <표 1>에서 살펴보면, 자본가 계급은 없었으며 구중산층 비율은 14%, 신중산층 비율은 22%, 노동자계급 비율은 62%이다⁵⁾. 또한 소년원생들 중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41%, 아버지와만 동거하는 비율은 23%, 어머니와만 동거하는 비율은 17%, 부모이외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은 17%이다⁶⁾. 이처럼 소년원생들의 가족환경은 결손가정(48%)과 부모가 생계활동 때문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다.

소년원생들의 어린 시절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

5) 종사상의 지위(고용주, 자영업자, 피고용자)와 직업의 대분류를 교차시키는 김영모의 계급분석틀에 의해 분류해 보았다.

6) 여기서 부모는 친부모를 의미하며, 계모와 계부는 제외하였다.

한 집에서 성장하다 결국 이혼을 하여 결손가정이 된 경우가 많다. 영순이의 면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는 자녀의 일탈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가출하게 되고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집에서 반겨주고 그래야 집에 들어갈 맛이 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기 전에 무척 많이 싸우셨어요.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저희한테 불뚱이 튀겨요. 우리, 동생하고 나하고 내쫓기면 동생은 무서우니까 집에 있구 저는 다른 친구네 집에 가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고 그래요. 뭐. (영순 면접)

소년원생들이 부모와 함께 산다고 해도 가족의 생계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에는 강압적이거나 폭압적인 경우가 많으며 평소에는 방임적 이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강압적이 되곤 했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끈끈한 정은 있지만, 자녀양육태도에 있어서 너무 방임적이다. 적절하지 못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일탈소녀들에게 “반항심” “모욕” “멀시”와 같은 감정이나 문제상황에 대한 해결능력의 결여를 갖게 한다.

다음은 심층 피면접대상인 12명의 일반적 특징을 <표 2>로 정리해 보았다. 심층 피면접자들은 연구자가 주로 학과반 중 검정고시반에 배치되어 참여관찰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정고시반·학과반 그리고 장기·단기보호이유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심층 피면접자인 12명 소년원생들 중에서 9명은 7호⁷⁾를 받은 장기보호생, 3명은 6호를 받은 단기보호생으로 구성하였다.

7) 소년원에서는 가정법원과 각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6호, 7호를 받은 소년들이 수용된다. 이 중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단기처리과정(6개월 이하)을 거치게 하고 7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중기처리과정(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이나 장기처리과정(13개월 이상)을 거치게 한다.

<표 2> 심층 피면접대상들의 일반적 특징

번호	이름 (나이)	보호이유 (보호기간)	소속	학력	가족과 관련된 사항		
1	민숙(18)	절도(장기)	검정고시	고퇴	2남1녀 (장녀)	부모이혼 생활보호대상 모와 동거 모(술집운영)	이혼전 부부불화 (경제적 이유) 모(방임)부(자식에 게 관심 없음)
2	화순(18)	유해화학(장기)	검정고시	중퇴	외동딸	부모이혼 모(아저씨)와 동거	모(방임)
3	환정(19)	유해화학(장기)	검정고시	고퇴	2남1녀 (막내)	편모(사별) 모(보험설계사)	모(관대)
4	은자(18)	유해화학(장기)	검정고시	중퇴	2녀 (장녀)	부모이혼 부(새엄마)결혼	부(방임)친모(방임) 새엄마랑사이 좋지 않음
5	영순(18)	유해화학(장기)	검정고시	중퇴	2녀 (장녀)	부모이혼 임대아파트거주 부모 : 공장노동자 부와 동거	이혼전 부부불화 모(관대) 부(엄격)
6	영민(18)	절도(장기)	학과반	중퇴	3녀 (둘째)	부모동거 부(술집)	부(엄격) 모(관대)
7	해진(19)	폭력(장기)	학과반	중퇴	2남1녀 (막내)	부모이혼 따로 혼자거주	부모(방임)
8	정미(18)	폭력(장기)	학과반	중퇴		고아 아는 언니랑 함께 동거	고아
9	민선(18)	절도(장기)	양재반	중퇴	외동딸	부(사망) 모(미상) 할머니와 거주	할머니(방임)
10	수진(17)	절도(단기)	단기반	중퇴	2녀 (막내)	부(사망) 모(공장노동자)와 동거	모(방임)
11	은미(18)	폭력(단기)	단기반	중퇴	2남2녀 (장녀)	부모이혼 부(직업 미상)와 동거	부(방임)
12	선미(18)	폭력(단기)	단기반	중퇴	1남1녀 (막내)	부모이혼 할머니랑 거주	할머니(방임)

(3) 소년원기관과 소년원 프로그램

소년원은 보호 처분된 소년들을 감호⁸⁾을 해야 하므로 소년원의 공간에 가장 커다란 목적은 외부와의 차단이다. 소년원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과는 많이 떨어진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년원안의 건물은 직원들이 생활하는 관사 그리고 소년원과 관련되어 있는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는 청사 그리고 소년원생들이 생활하는 생활관과 강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년원생들이 생활하는 생활관은 파란청기와 건물이며, 생활관은 다른 건물들과 철조망으로 차단되어 있다. 또한 생활관에 들어가려면 커다란 열쇠로 잠겨져 있는 철문을 처음으로 접한다. 이 철문을 통해서만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처음으로 “아, 여기가 수용시설이구나”라는 느낌을 지니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철문과 철조망”이다. “철문과 철조망”이 소년원과 밖(사회)와의 경계를 통한 감호였다면, 효율적인 공간배치는 소년원내부의 감호형태이다.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부터가 소년원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생활관이다. 생활관 안의 구조를 살펴보면, 철문 정면에 보도실이 있고 보도실을 중심으로 동쪽·서쪽 그리고 가운데 아이들이 잠을 자는 호실이 있다. 동쪽의 호실을 동편, 서쪽에 있는 호실을 서편, 가운데 있는 호실을 중편이라고 하며 서편은 단기, 동편과 중편은 장기와 중기가 배치되어 생활하고 있다. 생활관 안에서의 생활은 모두 보도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보도실안에는 소년원생들의 생활을 볼 수 있는 감시용 CCTV화면과 마이크가 있다.

소년원생의 물리적 환경이 소년원생들을 분류하고 그들을 공간안에 고정시키고 배분하며, 그들을 빈틈없는 가시성의 테두리 안에 가둠으로써 자유를 박탈하는 과정이라며, 소년원에서 시행되는 교육과정은 반성을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년원안의 교육프로그램은 성찰시간, 학과반시간, 취침전 일기 시간, 세 가지 시간대로 나눌 수 있다. 성찰시간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계획하고 이전의 삶을 반성하

8) 감호란 보호 처분된 소년원생을 수용하여 그들의 심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직원과 물적 설비에 의한 법적·사실적 적용을 말한다. 감호는 명목상 교정·교육이라는 주된 목적을 실시하기 위한 수단적인 활동이지만 보호 처분된 소년원생의 수용이 형사·사법적인 요건에 의한 수용이라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는 프로그램이다. 학과반은 크게 직업보도반과 검정고시반으로 나뉘어지며, 학과반시간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자격증취득”이라는 외형적인 목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학과반프로그램이외 도덕성회복지도⁹⁾, 금연지도, 퇴원예정생을 위한 사회복귀프로그램, 감수성훈련 등 각종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매일 실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시될 경우 학과반과 동일한 시간대에 운영된다. 또한 소년원생의 하루일과를 살펴보면 <표 3> 과 같다.

<표 3> 소년원 스케줄

소년원의 하루(민숙의 하루)	
-06:00	기상·점호
06:00-07:30	세면·특별구역청소
07:30-08:00	아침식사
08:00-08:30	성찰
08:30-09:00	자유시간 및 집회실 집합
09:00-11:30	학과장 : 검정고시수업
11:30-12:30	면회준비 및 점심식사 인원파악

9) 도덕성회복훈련이란 유해화학이나 절도로 들어온 소년원생들을 위해 실시한다. 도덕성회복훈련은 설문조사를 이용한 검사와 심리치료를 위한 비디오 상영, 상담치료 등으로 구성된다. 단기일 경우에는 1주일에 한 번씩한다고 한다.

소년원의 하루(민숙의 하루)	
12:30-13:00	양치 그리고 자유시간
13:00-13:30	중회(토·일 : TV시청)
13:30-16:45	학과장 : 검정고시수업
16:45-17:00	빨래당번 및 식사준비
17:00-17:30	저녁식사
17:30-18:30	저녁세면 및 청소
18:30-20:30	야간학습
20:30-21:00	취침·점호
21:00-24:00	야간학습
24:00-06:00	취침

Ⅲ. 소년원 적응

일탈소녀들은 구조화된 소년원 재사회화과정이 부여한 의미에 익숙해지고 내재화하는 원리들을 스스로 구성한다. 소년원생이라는 주어진 위치에서 자신의 모습을 원하는 대로 상상해 보고, 소년원생활에서 자신의 역할을 만든다. 이러한 소년원 생활의 적응은 “안”과 “밖”이라는 상징적 용어를 사용하여 소년원공간을 분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일탈소녀들은 물리적·의식적 경계를 통해 자신들이 소년원에 보호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우기 위해 “학교”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대체시킨다. 또한 일탈소녀들은 쉽게 행복이나 불행이라는 이분법적 가족프로그램에 동화하고 가족을 재의미화한다. 즉, 일탈소녀들은 공간에 대한 의미부여와 가족의 재의미화를 통해 소년원이 부여하는 반성·통제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다.

1. 공간에 대한 의미부여 : “안”과 “밖”의 분류

소년원의 물리적 공간은 “안”과 “밖”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안”과 “밖”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구분하는 개념 이상이다. 전체적인 공간구조에 있어서 “밖”은 사회를 의미한다. “밖”은 자유롭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안”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구속당하는 공간인 것이다. 소년원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처벌받고 있다는 자각을 부여한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처벌적 공간에 있다는 것을 잊고 싶어한다. “안”과 “밖”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소년원에서 부여하는 처벌·통제·반성의 과정을 부정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이며 또한 자신들이 처벌·통제·반성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각인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지금 시각은 오후 8시.. 밖에 있었으면 아마 열심히 놀시간인데 으구 불쌍한 내 신세야(화순 일기)

사회에는 무엇보다 자유가 있다. 하지만 법을 어기면 이런 곳에 들어오게 된다. 이곳은 답답하다. 밖에서는 이곳에서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과 친척 친구 언니들도 있다. 그래서인지 빨리 밖에 나가고 싶다. 밖에서 힘들고 지치는 하루도 있기는 하지만 난 밖이 더욱더 좋다. 나가고 싶다. 밖이란 곳이 너무 궁금하다. (수진 공식적 일기)

아이들은 밖에 나가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밖(사회)에 대한 그리움이 크다.

“안”과 “밖”이라는 개념은 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 소년원안의 물리적 공간으로서 “안”과 “밖”은 또 다른 개념이다. 아이들은 상황을 재구성하여 소년원안의 물리적 공간을 다시 이분화 한다. 호실은 방으로 학과장은 학교로 생각하고 있다. 소년원은 아이들에게 집이며 학교인 것이다.

내가 여기에 대해 가르쳐 줄까? 여기는 우선 동, 서, 중편으로 되어 있고 내가 있는 곳은 중편이야. 강당도 있고 학교같이 학과장이라는 곳도 있어.... 학과랑 집하고 다른 게 있다면 밖에선 학교갈때 차타고 가거나 걸어가잖아.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 조금 한 2분만 걸으면 바로 학과장이야.

(화순 일기)

가끔 집이다 학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영 그러니까 걸스카웃 야영 갔다가 끝내고 오는데 “집에 간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구요. 적응이 되어서 그런가봐요. (복술 면접)

아이들은 소년원공간전체를 집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소년원공간을 “안”과 “밖”으로 나누어 집과 학교로 등치 시키기도 한다. 학과장을 특히 학교처럼 생각하는 것은 소년원이 학교화되면서 공간구성자체가 학교와 거의 동일하다라는 공간적 느낌과 아이들의 일과 중 학과장에 갈 때는 교복을 입는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아이들은 호실에서 학과장으로 움직일 때는 항상 함께 모여 점호를 한다. 항상 함께 움직이게 하는 것은 소년원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통제의 방법이지만, 아이들에게는 공간과 공간의 분리로 인식하게 한다. 아이들에게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자신들의 물건이 있는 그리고 자신들이 설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집인데, 소년원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자신들의 소중한 물건이 있고 자신이 쉬는 일상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집인 것이다. 아이들에게 소년원은 단순히 간헐 있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학교이며 집인 것이다. 아이들은 소년원의 공간을 재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처해 있는 조건들을 중화시켜버린다(Sykes, 1957).

2. 가족의 재의미화

가족의 재의미화란 소년원생이 소년원프로그램에 동화되는 과정이다. 소년원에서는 일탈소녀들이 일탈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탈소녀들에게 끊임없이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주입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가족의 재의미화는 소년원생에게 “이상적”가족을 상상하게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가족은 “상상적”가족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소년원생은 실재 존재하는 가족

과 “이상”가족의 간극을 현실적 가족의 미화를 통해 메운다. 현실적으로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스러운 적도 있지만 그래도 가족은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이고 사랑하는 존재이며 소중한 것이다. 또한 소년원프로그램은 얼마나 소년원생들에게 가족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 번 각인 하게 하고 그들 스스로 가족정체성을 느끼게 주입한다.

1) 재사회화 프로그램 안에서의 가족

소년원에는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들이 있다. 야영훈련, 담임선생님의 상담지도, 종교교육, 자매결연, 선생님의 훈화·훈계, 외부인사 위문, 심리극, 감수성훈련, 직업보도, 생활성적제도, 교과교육, 단계처우, 징계 등이다. 소년원에서는 가족이 일탈의 원인이자 퇴원 이후 재사회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의 의미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가족의 재의미화를 시도하는 프로그램은 두 가지 선택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화목한 가정, 또 하나는 불행한 가정이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선택 속에 아이들은 화목한 가정에 대해 주입당한다. 아이들에게 화목한 가정에 대한 주입을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겠다.

소년원 하루 일과는 공식적 일기를 방송을 통해 낭독한 후 취침점호와 더불어 끝난다. 소년원의 공식적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일기쓰기는 매일 매일 성찰의 주제가 있다. 소년원에서는 공식적 일기의 주제를 통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에 대해 아이들에게 각인 시킨다. 실제로 30가지 성찰주제 중에서 가족에 대한 주제는 4가지(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조부모님)였지만 성찰 안에서는 다양하게 가족에 대한 언급을 유도하여,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희석시킴으로써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접근시킨다.

오늘 기민이 어머니께서 오셨는데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내마음을 눈물이 젖혀 주셨다. 사실 부모님이 나 하나로 인해 많은 고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다. 그래서 부모님께 죄송하기만 하다. 난 오늘 어머니로 인해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서야 느꼈다. 이곳에서 나가면 다시는 이런 곳에 들어 오지 않고 부지런하고 착한 딸이 되어야겠다.

(수진 공식적일기)

또한 학과프로그램 안에서 “자서전 발표” “1일 교사제” “부모님께 편지 쓰기”와 같이 가족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 자신이 사랑 받고 있고, 자신들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고 있으니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주입시키고 있었다. 특히 “부모님께 편지 쓰기”는 소년원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퇴원이후에 부모와의 적응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이다. 아이들이 재사회화프로그램속의 가족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 학과장이야. 나 울고 싶다. 왜냐고 우리 자서전이란 발표를 했어. 내가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거 몰랐지. 근데 언니 나 너무 속상하고 근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애.

아빠께 죄송하면 이곳에서 반성해 사회에 나갔을 때 아빠께서 보시구 기뻐하실 수 있게 말야... 알겠지... (은자 교환노트)

● 성찰주제 : 어머니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너무 보고 싶어진다. 어머니는 나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나를 믿어 주셨고 항상 힘들면 길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으시던 어머니 나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난 어머니를 항상 존경하고 사랑한다.. 비록 지금은 내가 어머니의 마음에 못을 박아 드렸지만 이제는 그 못을 뽑아서 치료해 드릴 것이다. 그 시간이 백 천 억년 아니 수천백십 천백십억년이 되더라도 말이다. 난 어머니를 항상 사랑한다. 영원히 아주 영원히 말이다. (영민 공식적 일기)

2) 가족의 필요성과 정체성

소년원생에게 있어서 가족은 어떤 의미이며 특히 소년원 생활 속에서 가족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를 가족의 필요성과 정체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소년원에서 면회는 가족만이 가능하다. 가족의 허락 없이는 다른 사람의 면회는 금지된다. 소년원생이 가족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평일 점심시간을 이용한 면회와 좌담회뿐이다. 면회는 면회실 안에서 이루어지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한다. 아이들은 면회할

때 미리 연락해서 필요한 물건 등을 가져오게 하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면회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퇴원점수에 부모님의 관심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면회와 부모님께 오는 편지가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퇴원점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소년원 퇴원 일정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면회를 자주 오신다는 것은 물품의 차입을 많이 해 준다는 것이며 언제든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부모님께 부탁할 수 있기 때문에 원내 생활이 편할 수 있다. 소년원안에서 나누어주는 비품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원에 물품에만 의존해야 해요. 그것 가지고만 생활해야 하나까 힘들죠. 물품을 별로 안 나눠줘요. 옷 빨아야 하구 씻어야 되잖아요. (영순 면접)

면회가 없는 고아의 경우나 면회를 자주 올 수 없는 조건을 지닌 아이들의 소년원생활은 주위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하기가 무척이나 힘들다. 또한 면회를 자주 오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소년원생활이 편할 수 있다.

잘 난척하는 애들이 편하게 살려고 물품 같은 것을 잘 나가는 언니나 애들한테 줘요. 물질적으로 바라게 되죠.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 편하게 사는 거죠.

<어떤 물품들?>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죠. 뭐. 펜, 편지지, 가방 그런 것들이예요. 저번 좌담회 때는 가방 같은 것 못 들여왔는데 이번에는 좌담회때 애들이 다 몰래 가지고 들어왔어요.(영순 면접)

일상적으로 면회하는 시간 이외 좌담회가 있다. 그날은 아이들의 부모 및 친인척들이 모두 오셔서, 아이들과 소년원내에서 만나기도 하고, 소년원이 어떤 곳인지 둘러보기도 한다. 좌담회는 특히 아이들이 기다리는 시간이다. 일상적인 면회 때는 만들어오는 음식 등이 차입이 되지 않지만 좌담회 날에는 여러 가지 음식, 물건 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의 관심은 소년원안에서도 필요하다. 가족은 아이들이 어디에서 생활하든 그곳이 소년원이든 아니면 사회든 언제나 중요한 요소이다. 소

년원안에서의 물질적 필요이든, 퇴원점수를 잘 받아서 사회로 빨리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든 소년원에서는 가족의 관심이 아이의 소년원 생활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가족의 필요성은 애정이다. 가족의 따스한 애정 그것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화순이와 화순이의 엄마의 관계를 통해 아이들의 가족에 대한 정체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화순이는 밖(사회)에서 이혼한 엄마랑 함께 살았다. 화순이는 엄마가 밖(사회)에서 얼마나 바쁘신 지도 알고 있다.

오늘 면회를 온다고 했었다. 책하고 필기도구를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엄마가 늦잠을 자는지 오지 않았다. 내일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6월 24일 화순 일기)

그러나 엄마가 자주 면회나 좌담회에 안 오면 가끔 화가 난다고 한다. 엄마가 화순 자신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의문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좌담회때 엄마가 안 온다고 했다. 정말 미워죽겠다. 괜히 혼자 열받고 혼자 나가서 좌담회때 안 온다는 한마디... 2월에도 안왔었는데... 처음에는 무척 기대 됐는데 지금은 기대도 안된다. 아예, 나갈때도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우리 엄마는 정말로 오지 않는다.

(6월 11일 화순 일기)

내가 엄마한테 눈 각막이식이라고 말했다¹⁰⁾.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 눈을 나에게 준다고 했다. 난 싫다고 했다. 눈이 나처럼 되면 살아가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마한테 난 괜찮다고 말했다. 나중에 면회 끝나고 일어날 때 엄마가 빠졌었다. 면회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할머니 손만 잡고 엄마 손은 안 잡아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올 때 엄마 손을 잡아 주었다. 엄마랑 정이 별로 없다. 난 밖에 있을 때 집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있으면 많이 있는 것이다. 일도 해야하고 그러니까 말이다. 그리고 내가 집에 있을 땐 엄마 잘때쯤 들어가서 나가고 있을 때 엄마는 일을 나갔기 때문에 마주칠 시간이 거의 없었다. (6월 19일 화순 일기)

10) 화순이 경우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본드를 붙어서 눈에 하얀 막이 생겼다.

화순이는 엄마와 별로 정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엄마가 자신에 대해 정말 애정을 지니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엄마는 자신의 눈을 화순에게 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고 있었다. 연구자가 보기에 화순이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엄마나 아빠도 애정은 있으나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애정을 지니고 있고 표현을 하고 싶어도 금전이나 생활에 쫓겨 가능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아이들과 부모와는 애정적 관계에 굴절이 있었다. 함께 있으면 왠지 엉클어진 실타래와도 같은 관계지만, 소년원에 들어와서 떨어져 있으니까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다. 소년원생활을 해 보니,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 지 알 것 같다고 한다.

나에겐 혼자 사시는 엄마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꼭 성공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 꼭 성공해서 엄마랑 함께 살꺼야. 지금은 이게 내가 젤루 하고 싶은 거야. (6월 13일 화순 일기)

아이들에게 가족은 “이상적 가족”과 “현실적 가족”이 있다. 아이들은 “현실적 가족”을 “이상적 가족”처럼 만들기 위해 미화한다. 아이들에게 가족은 소년원안에서나 머리 속에서는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 소년원안에서 생활하면 소년원이전보다는 가족에 대해 더 절실히 필요성을 느끼고 정체성을 느낀다. 소년원생에게 가족의 필요성과 정체성이란 바로 “애정과 보살핌”이다. 소년원생들은 소년원적응과정에서 더욱더 “애정과 보살핌”을 회구하고 간절히 가족의 관심을 원한다.

IV. 소년원 적응전략

1. 의사(疑似)가족관계

1) 가족적 인간관계

소년원생활의 가장 중요한 적응기제는 역시 “인간관계”이다. “인간관계의 개발에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적 길이”가 “소년원적응의 시간적 길이”와 일치한다. 즉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시간적 길이와 일치한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것은 적응원리 즉 소년원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간파했다는 것이다. 분명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은 학습되어지는 면도 있고, 정보로서 받아들여지는 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시간”속에서 좌충우돌 탐구한 결과이다. 소년원에 처음 들어올 때는 소년원에는 있는 아이들은 나와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지니고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반감이 존재한다. 즉 “나와는 다르다” “나쁜 아이들이다”라는 인식이 스스로 희석되든지, 아니면 “나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나쁜 아이들은 아니다” “생각해보면 나도 똑같이 죄짓고 들어왔다”라는 생각들 속에서, 동류의식이 생겨야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동류의식은 소년원프로그램을 함께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인간관계는 소년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제이다. 인간관계가 원만해야만 소년원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인간관계가 나쁘다는 것은 소년원생활자체가 힘들다는 것을 뜻한다. 하루 종일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소년원생활이다. 인간관계가 나쁘면 소외되고 소외된다는 것은 점점 생활자체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힘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서로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아야 할 것들이 많다. 친한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면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짜증을 내서는 안되며, 웬만한 일들은 참아서 넘겨야만 한다.

내가 정말 나보다 어린것한테 욕이나 쳐먹구..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두 아니구.. 열받는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나 바보같지.. 아니야 난 바보야.. 정말 어린것들에게 욕이나 쳐먹구.. 짜증나 그만 쓸레.. 저년 말 듣구 있으면 열받아.. 그냥 잘레.. 안녕.. (민숙 남자친구를 위한 노트)

오늘 아침에 누구한테 그렇게 재수 없다고 그런거야 아까 누구를 췌려보고 있던거 같은데 야 그래도 힘이 없는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야 괜히 잘못

걸렀다간 육은 육대로 얻어 먹지 장난 아니잖아 . (화순 편지)

소년원안에서는 지켜야 하는 합의가 존재한다. 다른 아이들과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직원 그리고 전체적인 생활 안에서도 일정한 합의가 있고 이러한 합의는 꼭 지켜야 하며,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참아야 하는 조건들이 많이 존재한다. 생활자체가 “참기”이다. 참기는 아이들에게 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선다. 소년원생활에서의 새로운 역할의 취득과 생활 속에서의 합의들은 아이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아이들 간의 결속감·동질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동질감의 형성은 아이들에게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동질감속에서 아이들은 비슷한 연령, 비슷한 지역, 비슷한 시기에 수용되었다 등 조그마한 연결고리만 있어도 급속도로 친해진다.

소년원집단에서 친한 소집단¹¹⁾들이 생겨나고, 이러한 소집단안에서 아이들은 인간관계 즉 가족적 연대를 맺는다. 소집단안에서의 아이들의 상호작용은 역할관계로서 파악될 수 있으며, 그 역할 관계가 바로 언니-동생 그리고 가족적 유대를 의미한다. 즉 소집단이 의사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회에서도 엑스언니 맺기가 있지만 소년원안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엑스언니는 권력을 가진 나이 많은 소년원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권력을 가진 언니들을 아이들은 “잘 나간다”라고 표현한다. 잘 나가는 언니들이 아이들의 엑스언니가 되면 좋겠지만 엑스언니가 되지 않더라도 잘 보여야 한다. 만약, 언니들에게 잘못 보이면 소년원 생활자체가 무척이나 불편하다. 소년원내에서 인정받는 언니들과 잘 지낸다는 것은 생활에서의 불편 함들을 없앨 수 있고 언니가 지닌 권력을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언니들에게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잘 나가는 언니들이 이빠하는 동생들은 언니들처럼 잘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이런 언니들과 잘 지내기 위해 또는 특별한 관계(가족적 연대)를 맺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을 한다.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좋은 물건 갖다주기” “칭찬하기” “고자질하기”등을 한다.

11) 여기서 소집단이란 행위를 규제하는 어떤 규범을 공유하고 어느 정도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인 역할관계로 맺어진 두 사람 이상의 개인들로 이루어진 단위를 의미한다.

언니, 언니는 갈수록 참 이빠요. 많이 이빠진거 있죠. 제가 침에 언니 신 입때 보자마자 이쁘다고 했는데... 김영경언니한테.. 침부터 내가 “찜” 했다는 소리예요. 무슨말인지 알죠. (은자·환정 교환노트)

아이들은 은자처럼 언니들에게 끊임없이 칭찬하기를 한다. 이러한 칭찬하기는 상대방에게 확신과 안정감을 주며 그럼으로써 상대방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이런 행동은 칭찬한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진다. 소년원에서 의 보상은 교환노트를 한다던가 상대방과 특별한 사이가 되는 것이다.

물론 아이들은 잘 나가는 언니에게만 이런 칭찬하기를 하는 것은 아니며, 친구들간에도 존재한다. 칭찬하기는 서로에게 초코파이를 나누어 주다든지, 아니면 물품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면서 더욱 강하게 연대한다.

수건은 내가 아빠에게 처음으로 받은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준거고, 애들에게 절대 수건빌리지 말구, 잊어버리지마, 거기 내이름 적혔어. 미안하게 절대루 생각하지마. 굴9 민선아 사랑해. 진짜야 이건 진심이야 너만 나를 계속 사랑한다면 말이야. (은자·민선 교환노트)

서로 물품을 나누어 쓸 정도가 되면 아이들은 서서히 서로 손을 잡고 다닌다던가 육체적 접촉을 하기 시작한다. 또한 다른 아이들과 싸울 경우 강력한 후원자가 된다. 이렇게 아이들은 끊임없이 우리는 친한 친구이며, 의리가 있고, 나는 너에게 헌신적이라는 것을 초코파이를 통해서 혹은 몸짓이나 눈짓 등을 통해 보여준다. 은자와 민선이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의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신시킨다.

나는 항상 그래 애들이 누가 너랑 제일 친해? 믿을 만한 친구 있어 그런면 나는 “응” 자수방에 박민선이야...라구 뽀뽀하게 말한다. 힘들땐 니생각부터 하구, 내가 진짜 사랑하는 민선아 힘들어 하지마. 쪽 팔릴 것두 없구, 절대루 울지두 말구... (은자·민선 교환노트)

은자야, 민선이 꿈꾸구, 면회 자주 못 온다구 속상해 하지마. 좌담회때 오
실꼬야. 은지야, 마냥 사랑해 ----- ♥ (은지·민선 교환노트)

아이들간의 친밀감은 칭찬하기라는 언어적 행위에서 초코파이 등과 같은 물리적 행위를 거쳐, 손을 잡는다든가하는 육체적 접촉이나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한다는 비언어적 감정 교감을 통해 더욱 강력한 가족적인 연대를 형성한다. 아이들에게 소년원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친구나 언니는 단순히 동료이상을 넘어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오늘 신입이 무척 이쁘드라...

우리는 사회에서부터 친구였다. 우리는 서로서로 소중한다고 느낀다

(은자·민선 교환노트)

아이들의 소집단 즉 의사가족은 은자나 민선이처럼 사회에서의 인연이나 혹은 신체적 매력¹²⁾ 또는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람들과 주로 구성한다.

2) 자매결연 : 용산 아빠. 겨자씨 엄마

소년원생들은 상상 속이 아닌 현실적으로 애정을 느끼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존재를 찾는다. 이러한 “애정과 보살핌”에 대한 현실적 추구와 소년원 자매결연 프로그램이 결합한 것이 “의사가족관계”이다. 소년원생들은 “의사가족관계”를 통해 소년원에 대한 적응전략을 형성한다. 소년원안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청소년선도단체나 주로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명칭은 결혼을 한 경우에는 엄마, 아빠로 통칭하고 그 외에는 선생님이라고 호칭한다. 소년원안에서 아이들의 보호역할을 하는 직원들의 호칭도 선생님이

12) Aronson(1980)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사업동료, 친구 혹은 사교집단의 구성원들을 선택할 때, 신체적 매력의 판단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다 할 지라도, 연구는 사람들의 좋은 인상이 다른 어떤 가치 있는 재화와 같이 사회적 상호작용동안에 주고받는 하나의 재산이 된다고 언급했다.

다. 아이들은 자원봉사자들이나 직원들과 자매결연을 맺는다. 아이들에게 있어 자매결연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이익이 된다. 특히 소년원안에서 부족한 물품을 조달하는데는 자매결연만큼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

오늘 천주교집회에 다녀왔지롱.. 엄마선생님이 기도 열시미 한다구 칭찬 받았다... 메롱. (민숙 · 혜철 교환노트)

아빠가 오셔야 하는데.. 아빠가 저희 책이랑 편지지랑 가져오시기루 했거든요.

< 아빠? >

용산선도위원아빠들이요.

< 아빠라고 부르니? 아빠라고 부르는 것 어색하지 않니? >

아뇨. 그냥 잘 나와요 (동미 면접)

하지만 아이들이 단지 물품 때문에 자원봉사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만은 아니다. 물품은 아이와 자원봉사자들간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도구일 뿐인 것이다. 아이들은 겨자씨엄마 또는 용산 아빠가 보내는 애정 또는 돌봄 속에서 가족적 관계를 느낀다.

< 그래. 엄마라고 하는게 어색하지 않니? >

조금 어색했는데. 제가 내성적이라서. 근데 겨자씨 어머니회를 하는데 제 겨자씨엄마가 없으면 기분이 나쁘고 그래요. 가끔 진짜 엄마같아요. 여기서 다 그래요.

< 언제 엄마라는 생각이 드니? >

저를 걱정하고 돌봐주잖아요. (영순 면접)

이런 의사가족관계는 소년원안에 있는 동안 계속되며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관계들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기다리는 시간이 된다. 소년원 밖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힘든 시간에 그들을 돌봐주고 마음을 써 주는 겨자씨엄마나 용산 아빠는 그들에게 가족인 것이다.

난 엄마가 없다. 그리고 혼한 나이와 얼굴도 모른다. 왜냐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나랑 가족 모두를 싸두고 도망가셨다. 그래서 난 엄마를 미워했다. 가족 모두 엄마를 싫어한다. 그리고 난 엄마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다. 다른 아이들이 엄마랑 다닐 때 너무 나도 부러웠었다.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가서 밍다. 그리고 죽이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고 나를 낳아준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만 원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괜찮다.. 나에게도 엄마가 생겼으니까 하지만 친 엄마가 아니라 겨자씨 엄마다. 그리고 좋으신 분이다. 자상하시고 그래서 겨자씨엄마가 좋다. 그래서 앞으로 잘해야지. (영민 일기)

겨자씨 어머니회가 있었다.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다. 그리고 겨자씨 엄마한테 선물을 받았다. 아주 예쁘고 귀여운 곰인형. 정말 기분이 좋았다. 내가 지금껏 인형선물을 받은 건 2번째이다. 내 기억으로는 첫 번째는 96년 크리스마스에 삼촌이 아주 큰 고릴라 인형을 사주셨다. 그리고 2번째는 겨자씨 엄마. 아 행복해라. (영민 일기)

영민의 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영민이는 엄마를 원망한다고 했지만 원망보다는 자신도 엄마라고 불러보고 싶고 다른 아이들처럼 손잡고 함께 다니고 싶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항상 원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망했는데, 진짜는 아니지만 엄마라고 부를 수 있고 자신에게 애정을 표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이러한 행복감 때문에 의사가족관계를 쉽게 받아들인다.

아이들은 겨자씨엄마, 용산 아빠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카드를 이쁘게 꾸며 주기도 하며 칭찬하기를 통해 더욱 강한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 노력한다. 가끔 아이들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을 노출하고 이러한 노출을 통해 친밀감을 표현하고 친밀해지려고 노력한다¹³⁾.

13) 연구자에게도 한 아이가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면담을 요청한 적이 있다.

2. 자유영역(틈새) 만들기

통제된 상황이라는 외부적 강제력과 자유롭고 싶다는 개인의 의도가 만나는 지점이 자유영역(틈새) 만들기이다. 자유영역(틈새) 만들기는 소년원이라는 전체적 기관의 적응전략이다. 조직의 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자신의 자아를 유지하려는 인간의 능력이며 그들만의 의사소통의 장이다. 아이들의 해방구이다.

특별한 날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는 짜증나는 소년원 일상에 대한 적응전략인 자유영역(틈새)만들기는 “노트 꾸미기” “비행담하기” “유행 만들기”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자신의 자아를 유지하고 통제적 상황인 소년원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인 자유영역(틈새)만들기가 가능하려면 위에서 언급했던 의사가족관계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자유영역(틈새)만들기인 “노트 꾸미기” “비행담하기” “유행 만들기” 등은 혼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영역(틈새)은 아이들 개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아이들 즉, 의사가족관계처럼 강한 결속감과 애정을 지닌 대상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유영역(틈새)만들기는 소년원안의 의사가족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도 한다.

1) 노트 꾸미기

자신들만의 비공식적 그룹을 만들어 내면서, 아이들은 소년원상황에 대처하는 전략을 세운다. 이러한 대처는 집단적이며 소년원생활의 통찰에서 나오는 저항성도 내포되어 있다. 소년원안에서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자유영역을 만들어 나간다. 이러한 자유영역이 노트꾸미기이다. 소년원에서 통제하는 세분화된 시간적 배분 속에서, 자신들만이 관리하는 시간의 자유영역을 확보한다. 확보된 시간 속에서 아이들은 주로 시간을 노트 꾸미기, 편지 쓰기로 보낸다. 노트 꾸미기에는 대상에 따라 소년원안에 친구랑 하는 교환노트, 자신의 일상의 생각이나 좋은 시구 등을 적어 놓는 마음노트, 밖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줄 노트로 나뉜다. 소년원의 일상적인 규칙은 아이들에게 자신과 친한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거의 빼앗는다. 아이들은 친한 친구와 무척이나 교환노트를

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교환노트를 통해 자신과 친한 친구와 애정을 확인할 수 도 있고, 친한 친구가 있다는 것을 다른 아이들에게 과시할 수 도 있으며 의지가 되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교환노트를 할 친구가 없다는 것은 소년원 생활자체가 힘들고 고달프다는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교환노트는 원칙적으로 소년원안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있기에 친한 친구들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이 가족적 결속감을 증진시킨다.

또한 아이들의 노트는 가상이나 실재하는 존재와 이야기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 안에서는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펴낼 수 있다. 하지만 이 공간도 가끔은 직원이나 다른 아이들에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야 한다.

교환노트를 이용하여 실재적인 시간적 공간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내가 10시 30분에 서편 화장실로 갈 테니 나와라 알겠지... 꼭이야.. 약속... (민숙·해진 교환노트)

노트 꾸미기는 아이들에게 가상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쁘게 노트를 꾸미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교환노트, 마음노트, 남자친구를 위한 노트 정말 노트가 많다. 그 많은 노트를 꾸민다. 화이트 펜을 이용하기도 하고, 색연필에, 다양한 그림들 너무나 이쁘다. 노트에 장마다 하나도 같은 모양이나 같은 느낌이 드는 장이 없다. 아이들의 관심은 노트를 이쁘게 꾸미면서 시간을 보낸다.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쳐서 가지 않는 시간을 노트 속에 묻어버리는 것이다.

나야 편지지 어때? 캔트지루 예쁘게 하트모양으로 자른 거야.. 예쁘게 잘랐지.. 방금 내 친구랑 풀었어 아까 싸웠거든 화이트 펜 색 이쁘지? 검정고시 같은 반 언니가 빌려줬어.. 나두 화이트펜 너달라구 할꺼야.. (중략)

그냥 학과장에 있는데 니가 생각나서.. 그 그림 맘에 드니? 사실 이거 내 아이디어 아니야.. 검정고시 반에 같이 있는 언니가 아이디어 내준 거야.. 예쁘지? 난 너에게 매일 예쁜 건만 그릴 거야.. (민숙 남자친구에게 줄 노트)

언니 분홍색깔 펜을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 펜을 들었어요.
(은자)

내가 아직 널 사랑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풀색으로 쓴다. (환정)

은자씨 드디어 우리 한장 남았다. 달랑 한장.. 아이좋아라.. 너두 좋지? 막
장은 니가 멋지게 장식하거라 pen 때문에 엄청 고생했다. (환정)
(은자·환정 교환노트)

그러기 때문에 마음노트나 남자친구를 위하는 노트 그리고 교환노트까지도 별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을 기울여서 시간을 많이 많이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노트를 꾸미는 것이 아이들에겐 주어진 검정고시 공부나 컴퓨터 혹은 자수반 공부보다 훨씬 재미있고 시간도 잘 간다. 그들이 해야하는 공부인 컴퓨터, 자수, 양재, 미용, 검정고시는 소년원안에서 주어진 것이지만 실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 그들에게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면 아이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밖으로 나가고 싶은 것을 선택할 것이다. 나갈 수는 없기에 공간과 시간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수다떨기(비행담하기)

아이들은 끊임없이 수다를 떠다. 호실에서 학과장에서 그리고 복도에서.. 비행담하기의 내용은 약간씩 달라지지만 주로 비행담과 밖에서 알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소년원내의 아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원안에서의 일상적인 일정에 관한 것들이다. 비행담하기는 아이들만의 피난지를 만드는 것이다. 소년원안에 매일매일 진행되는 지배와 통제 그리고 단절된 공간에서 오는 무료감, 스트레스를 “비행담하기”를 통해 해소한다. “비행담하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소년원이라는 공식적 기관에 대해 피상적인 도전도 해 보는 것이다. 소년원 복도 안에 걸려 있는 생활목표 뜻말에 쓰여진 “비행담 하지 않기”란 문구에 반발이라도 하듯 아이들은 끊임없이 비행담하기를 한다.

제일 재미있는 것은 텔레비가 제일 재미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얘기하는 거요

<주로 무슨 이야기하는데?>

거의 비행담이요 그냥 그런 얘기해요 비행한 얘기요. (화순 면접)

아이들은 비행담을 통해 자기삭제과정속에서 박탈된 사회적 정체감을 회복하려고 노력한다. 비행담을 통한 과거 사회적 정체감의 회복은 아이들에게 과장과 왜곡을 불러일으킨다.

화순이랑 앉으면 제일 하는 얘기가 비행담이에요.

포즈까지 다 해요. 얘기 듣고 있으면 재미있었요, (중략)

말이 붙이구 붙이구 해서

서로 비밀로 한다구 하더라도 새나기 마련이에요 (민숙 면접)

민숙과 화순이처럼 끊임없이 시간 때우기로 비행담을 너무 재미있게 구체적인 표현과 행동까지 하면서 수다를 떠는 것이다. 이러한 비행담하기는 아이들간의 결속감이나 동류의식 또는 동경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비행담하기는 아주 재미있는 친구간의 언니-동생간의 놀이이다.

3) 유행 만들기 (자생문화)

소년원안에 유행 만들기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아이들 생활 안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자유영역(틈새) 만들기이다.

오늘 교복 치마 줄였어. 조금. 내일 또 해야되.. 김정고시 갈 때까지 줄어야지..

(원안에서 아이들이 전부 바지를 헐에 걸쳐서 입고 있었다. 바지를 오래 입어서 고무줄이 삭아서 내려왔는줄 알았다) 애들 다 내려입어요. 밖에서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짧게 짧게 입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옷 두 복고

스타일이라구 해야 하나 발목까지 오는 것 약간 스펀으로 된 청바지가 유행이었어요. 여기 들어오니깐 힙합바지도 아니고 골반에 걸쳐서 입구. 여기 처음에 와서는 안 그랬는데 계속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되더라구요. 밋을 부릴 것이 없으니까 그게 밋이에요. 신입애들 중에도 내려 입는 애도 있는 반면에 올려 입는 애도 있어요. 어느 정도 생활 지나면 내려 입어요. 3-4개월 되는데도 올려 입는 애들이 있어요. 소리 없이 지내는 애들... 여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세요. 티를 겹에다 내 입으니까, 겨울에는 속에 바지를 입으니까 속옷이 다 보여요. 그래서 바지 올려 입으라고 하는데 여름에는 안 그래요. 명찰 있죠. 명찰 조그마케 파는 것 그게 유행이에요. 저도 명찰 큰 거예요. 티도 양재 반에서 줄어요 바지는 길이를 길게 여기(바지 밑단을 가르치며)를 접어서 늘어요. 머리두 밖에서는 옆가리마 해가구 했는데 한꺼번에 올려서 편을 꺾고 묶구해요. 요즈음 김희선 머리핀이 유행이라면서 몇몇 아이들이 하구 있어요. (민숙 면접)

이러한 패션에서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은 다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는 소년원의 통제 원리에 대한 집단적 대처라고 할 수 있으며, 밖에서 자신들의 모습과 소년원안의 자신의 모습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7호 사는 민숙이 아니라, 유행 때문에 들어온 환정이가 아닌 민숙이고 환정이고 싶은 마음이다.

선생님 밖에 요즈음 어때요?

유행이 어떠냐구요? 옷은 어떻게 입어요? 요즘도 뽕족한 신발 신어요.

(정미 면접)

아이들은 항상 밖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밖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항상 궁금해한다. 밖(사회)의 변화란 유행이다. 아이들은 밖에서는 유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소년원안에서는 밖에서 유행에 민감하게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내보일 수가 없다. 이러한 현재 소년원생활을 하는 자신과 과거 유행에 민감했던 자신과의 거리를 좁히는 기제가 바로 옷을 줄이고 이름표를 줄이는 것이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유행에 민감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소년원에서의 자신의 모습과 과거 자신의 모습과는 너무도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거리를 좁히는 작업으로써 “옷 줄이기”, “이름표 줄이기”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행 만들기를 통한 자유영역만들기는 소년원생 그들 안에 동류의식을 더욱 강화시킨다.

V. 토의와 맺음말

청소년일탈에 대한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 그 동안 많이 수행되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청소년문제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 항목별로 연구되지 못하고 일반론에 치우쳐 있고, 약물남용이나 폭력에 대해서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나 기타 영역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하거나 소수 있을 뿐이며, 연구영역면에서는 원인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한준상, 1999). 이에 본 연구는 일탈소년들이 경험하는 소년원생활을 탐구함으로써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내면세계를 탐색함으로써, 청소년일탈연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영역 변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일탈소년들의 소년원생활을 “가족”이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살펴보았다. 소년원생들은 사회경제적 빈곤과 가족관계에서의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13세 이전에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 생활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열악한 가족관계는 소년원생이 소년원에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적응전략으로 “자유영역만들기”, “의사가족관계”를 형성했다. 소년원생이 의사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재사회화라는 목적아래 행해지는 박탈과정·반성과정·통제과정에 맞서 자신의 자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자유영역(틈새)을 확보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소년원 적응 후에 자연스럽게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적응전략인 “의사가족관계”나 “자유영역만들기”를 통해서 우리는 플러머의 논리를 만나게 된다. 플러머는 통제되어 있는 자신의 주어진 위치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원하는 대로 상상하고, 능동적으로 상상하는 과정은 과거의 생활과 연관이 깊다고 논의하고 있다. 즉, 과거의 열악한 가족환경이 소년원생의 소년원 적응과 적응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년원생들의 소년원 적응과 적응전략을 통해 그들이 화목하고 애정이 존재하는 “이상적”가족에 대해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탐색하였다. 하지만 소년원생들에게 실제 존재하는 가족은 이러한 “이상적”가족과는 매우 달랐다. 결손가족의 비율이 높고 대부분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던가 아니면 생계에 밀려 아이들을 보살필 처지가 되지 않은 가족환경이다. 이러한 소년원생들의 “이상적”가족과 “현실적”가족과의 간극은 현실적 부모와 가족에 대한 옹호와 미래의 자신들이 구성할 가정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보살핌과 애정을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소년원내의 “의사가족관계”형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소년원생들의 소년원 적응과 적응전략을 통해 그들이 “보살핌과 애정”을 필요로 하고 갈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년원이 단순히 “가족이란 소중하고 화목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주입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현실과 부모의 가치관 등을 고려하는 가운데 처우조건을 구성해야 할 것이며, 기성세대의 관심과 애정에 기초한 구체적인 참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애정과 보살핌”에 기반을 둔 또래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년원에 사는 일탈소녀들의 삶의 모습이나 학교에서 생활하는 일반청소년들의 삶의 모습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음을 보았다. 즉, 일탈소녀들도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요구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일탈청소년의 교정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참 고 문 헌

1. 소년원 관련 자료

- (1) 소년원생의 교환노트 6권
- (2) 소년원생의 공식적 일기장 4권
- (3) 소년부 기록 2부
- (4) 소년원생의 편지
- (5) 소년원생 면접 테이프 10개
- (6) 현장기술노트 1권

- 강세현(1986). 형사처벌에 따른 사회적 반응에 대한 소년법의 지각 형태 - 선도보호소년들의 사례분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강익희(1986). 청소년 비행에 관한 일연구 : T.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이(1992). 결손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보호방안.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개선방안 세미나. 한국청소년학회.
- 김소연(1985). 한국 중학생의 비행화 과정에 대한 연구 - 서울 남녀공학 중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종무(1994). 학교교육에 베커의 이론의 도입. 경북대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준호(1990).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김순형(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 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노성호(1993).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성호(1992). 한국의 청소년 비행화의 관한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노성희 외(1990).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변영인(1994).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및 양육태도와 일탈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변화순·김현주(공역)(1991). 가족과 결혼의 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Andree, Michel(1986). "Sociologie de la famille et du mariage"의 번역본.
- 심응철(1992).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대처방안. 청소년지도자 연수교재 I, 한국청소년연맹.
- 오생근(1997). 감시와 처벌. 서울: 나남, Michel, Foucault. 1975, "Surveiller et Punir"의 번역본.

- 윤옥경(1987). 법적 낙인이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학과 석사 학위논문.
- 이광규(1981). 한국의 가족구조분석. 서울: 일지사.
- 이기현(1988). 낙인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길자(1999). 부모 - 자녀관계와 학업성취도 및 일탈행동에 대한 분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이병기·김성연(1995). 소년원생의 생활실태 및 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수성·한인섭. 세계범죄학의 연구 동향분석. 서울대 「법학」 26권 2.3호.
- 이태원(1992). 비행행동이론의 통합모형 : 사회통제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 학위 논문.
- 최재석(1990). 한국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함중환(1992). 청소년학원론.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Sykes, G. & D, Matza. (1957).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 A theory of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 664-670.
- Sykes, G. (1958). *The Society of Captives : A Study of Maximum security Pris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ABSTRACT

Adjustment and Adjustment strategy of Juvenile House

Jung, Hye-W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adjustment process of deviation girls by observing and describing all things which deviation girls can experience in Juvenile House. I try to analyze how deviation girls adjust to process Juvenile House and form the corresponding strategy. And for this, ethnography is used for concrete study.

The most important assertion in this study is that the deviation girls need 'affection and taking care' and can be resocialized in such a closed condition. As the deviation girls choosing and organizing 'similar-family relationship'. All what the deviation girls really want are 'affection and taking care' of family. And this shows that we need to have reeducation and similar education programs making with their family members.

* Doctor Course in Sociology Korea University